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러시아의 영토 확장에 대한 NATO와 미국의
군사 대응

-2014년 및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곽한박

러시아의 영토 확장에 대한 NATO와 미국의
군사 대응

-2014년 및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치욱

이 논문을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곽한박

곽한박의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철근(인)

심사위원 김치욱(인)

심사위원 왕 징(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4년 6월

국문초록

러시아의 영토 확장에 대한 NATO와 미국의 군사 대응
-2014년 및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곽한박

울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리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이유로 군사 작전을 선포하였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과 핵 포기 정책 재고 가능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러시아는 군사적 대응과 동시에 서방의 경제 제재를 대비하였으며, 나토와 미국은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2014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은 러시아의 영토 확장 의지를 보여주었고, 나토와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영토 확장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한다. 특히, 나토의 대응 전략과 미국의 정책 변화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며, 동유럽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유사성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키워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블라디미르 푸틴, 나토 대응 전략, 미국 군사 정책, 한반도 시사점

목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목적	3
1.3 연구범위	4
1.4 연구방법	4
1.5 연구의 의의 및 기여	4
1.6 연구의 구성	4
제2장 전쟁의 배경	6
2.1. 선행연구	6
제3장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1
3.1 러시아의 영토확장	11
3.2 나토의 대응전략	13
3.3 미국의 대응전략	15
제4장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1
4.1. 전쟁의 배경	21
4.2 나토의 대응전략	23
4.3 미국의 대응전략	24
제5장 결론	26
참고문헌	33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¹⁾.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재계 대표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피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²⁾

푸틴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보안 위협이 발생했고 다른 조치들은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크렘린궁(대통령궁)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을 분석했지만 모든 잠재적 영향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제한이나 제재에 대비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일부이다,"라고 푸틴은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 경제 시스템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파트너들이 러시아를 체제 밖으로 몰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이 나토의 움직임이 생사의 문제라며 나토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³⁾.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대규모 경제 제재를 예고했다.

1) 강정일. 2019,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5권 2호: 147-171.

2) 우크라이나 침공에 요동치는 실물·금융시장... 정부의 위기 대응책은, 세계일보.

3) 그레고리 프리몬 반즈(Gregory Fremont-Barnes)·토드 피셔(Todd Fisher) 저, 박근형 역. 2009, 『나폴레옹 전쟁: 근대 유럽의 탄생』 (서울: 플래닛미디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긴급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다. 그는 이번 군사행동이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끊임없이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혈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양심에 달려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올 경우 러시아가 즉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 영토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냉전 이후, 유럽의 질서는 '불균형 다극 체제'에 놓였다. 유럽 주둔 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 주변국을 침공했다. 러시아는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과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했다⁴⁾. 우크라이나는

4) Howard, Colby and Ruslan Pukhov (eds). 2014,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Minneapolis, MN: East View Press).

물론 나토와 주요 회원국들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당시 나토의 정치적 의지와 나토의 군사력으로는 러시아의 빠르고 강력한 침략에 대처할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난 것은 유엔이나 NATO가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같은 개별 국가였다.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막으려는 것은 미국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 '준비완료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고위대비 합동특수부대'와 '나토 대응력 강화' 작전을 주도하고 있다⁵⁾. 일련의 조치들이 연구자들에게 '냉전 복귀'를 예측하게 하고 있다. '준비행동계획'부터 '나토 대응전력 강화'까지 핵심 개념에는 냉전에 버금가는 '전진 배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향후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정치행동은 유엔이나 나토가 아닌 개별 강대국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동유럽의 약소국들을 포함한 러시아의 이웃 국가들은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 그들의 영토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미군 등은 현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으며 러시아 주변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준을 눈에 띄게 낮추지 않는 한 유럽에서 활동하는 미군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유럽 질서를 지배하던 '불균형 다극체제'가 '불균형 양극체제'로 탈바꿈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2014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태에 대한 NATO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시사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러시아의 영토 확장 행태를 분석한다.
2.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 전략을 평가한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한다.
4. 동유럽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유사성을 고찰하여 한국의 안보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통해 본 연구는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

5) -----, 2012, "NATO Response Force: a Reality & Priority" (Thessaloniki, Greece: NRDC-GR, 2012).

회의 전략을 명확히 하고, 한국의 안보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3 연구 범위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하며, 주요 연구 대상은 러시아, 나토, 미국 및 우크라이나이다. 연구 자료는 주로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의 발표, 학술 논문 및 언론 보도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영토 확장과 이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병행한다.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분석한다. 또한, 국제정치 이론을 적용하여 러시아의 행동과 이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5 연구의 의의 및 기여

본 연구는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안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동유럽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실제 안보 정책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6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서론: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방법, 의의 및 논문의 구성을 설명한다.
2. 이론적 배경: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3. 사례 분석: 러시아의 영토 확장과 나토 및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5. 결론: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러시아의 영토 확장 행태와 이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매우 불편한 사안이다. 러시아가 이런 지정학적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친미(NATO·나토 가입·나토 군사훈련)·친유럽화 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현 우크라이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⁶⁾.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는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룩셈부르크·스페인·영국 등 서유럽 국가와 체코·크로아티아·터키·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동유럽 국가들은 구소련이 해체될 때 나토에 가입했고, 러시아 인근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러시아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 포함되었던 독립 국가이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였지만 러시아가 보유한 천연자원인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깔아놓은 가스관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통해 설치됐다. 러시아의 재정 대부분은 유럽에 공급되는 가스로 조달되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유럽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 듣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을 대표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통제하고 나토 회원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어렵게 됐다.

러시아는 석유·석탄·천연가스·다이아몬드·목재 등 천연자원이 많고 원유 17%, 천연가스 25~30%, 역청탄 6%, 산업용 철광석·비철금속 17%, 귀금속 10~20%를 러시아 자원이 차지하고 있다⁷⁾.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양의 자원이 중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는 과거 러시아 영토였고,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평지가 많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송유관을 깔았다. 러시아는 송유

6) 김성진. 201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중소연구』, 39권 4호: 245-285.

7) 홍완석. 2014, “2014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반도,” 『슬라브研究』, 30권 2호: 89-118.

관 비용과 원래 러시아 영토였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원 수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지만 우크라이나의 독립 비용은 러시아가 부담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당연히 자원 수출과 경제적 측면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러시아에게 천연자원은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한 천연가스로 유럽을 지배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가스관 밸브를 차단하면 유럽은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으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 자원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러시아의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2012년 처음 완공돼 가동 중인 1222km의 천연가스 수송용 가스관 '노스스트림1'을 통해 연간 최대 550억m³의 천연가스를 독일로 수송하고 있으며, 노스스트림2 역시 연간 550억m³에 달한다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노드스트림2 건설을 재촉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싼값에 사들인 뒤 나머지 물량을 유럽 내 다른 나라에 되팔아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독일은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었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다.

북류가 흐르기 전에,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사용했다. 반면, 북해는 발트해를 통해 서러시아에서 독일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형 가스관 개설은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전쟁 역지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가스관이 주요 수송 수단이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항하여 이 송유관을 활용할 수 있었다.

과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위협할 경우 자국 내 가스관을 잠그거나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류 1호와 2호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 않는다. 지난 9월 21일 노드스트림2 완공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심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러시아가 이제 주력 산업을 잃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고⁹⁾, 이 새로운 상황

8) Howard, Colby and Ruslan Pukhov (eds). 2014, *Brothers Armed: Military Aspects of the Crisis in Ukraine* (Minneapolis, MN: East View Press).

9) Coffey, Luke. 2019, "Creativity and Bold Leadership Needed for Georgia's NATO Membership," *The Heritage Foundation Issue Brief*, No. 4969, <https://www.heritage.org/defense/report/creativity-and-bold-leadership-neededgeorgias-nato-mem>

은 그렇지 않더라도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드스트림2는 2018년 러시아 나르바만을 시작으로 발해를 거쳐 독일 북부 도시 그라이프발트와 연결되며, 길이는 1225km로 연간 최대 550억m³의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다. 노드스트림2는 발트해를 가로질러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해저 가스관을 연결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수송능력이 두 배로 늘어난다. 미국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심화되고 러시아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그러나 9월 21일 노드스트림 2호 공사가 완료되어 독일 정부의 운영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자 독일은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북스트림2 승인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설 사업의 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핵 포기 정책을 재고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침공 우려로 심각한 안보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정책을 재고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1994년 러시아, 미국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담긴 핵 포기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뮌헨 안보리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MOU)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만약 회의가 다시 소집되지 않거나 회의 결과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이 각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1994년의 모든 결정은 의혹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비망록을 통해 약속한 핵 포기 정책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젤렌스키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을 시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다페스트 비망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러시아는 핵무기를 회수할 수 없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아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bership (2021/02/1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 영국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서명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 영토보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문서다.

이 비망록을 이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1996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2014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각서 서명국인 러시아가 영토보완을 보장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각서 서명국들이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회복과 안전보장 제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핵보유국을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보안도 없다. 그는 또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보다 큰 영토(크림반도) 일부를 잃었다"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안보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서방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정화·회복 기금을 조성하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들에 제공한 것과 유사한 공급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표명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스스트림2 가스관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 경제의 주요 부분인 유럽에 에너지를 수출하기 어려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러시아의 협상 복귀를 압박했고, 이 역시 러시아를 자극했다. 미국 관리들은 새로운 가스관 가동을 금지하는 제재가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을 가로막은 러시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부통령은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은 치명적인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공격의 죽음과 파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 그는 동맹국·파트너 등 국제사회 전체가 러시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단적으로 가혹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전쟁의 양상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 양상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동부 외에도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고, 우크라

이나는 이를 '전면전 발발'로 규정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즉각 비난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러시아 4대 은행의 자산을 동결하고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또한 금융, 에너지, 운송 부문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제재에 합의했다.

III.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1 러시아의 영토확장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과 나토 등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에 불이 붙었다는 시각이 있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전략적 요충지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다¹⁰⁾. 러시아는 2014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장갑차로 증강된 보병과 해병대 등 임무 유형에 따라 특수 공수 및 특공대를 동시에 운용해 크림반도를 단숨에 장악했다. 공수부대와 특공대는 사전에 침투했거나 Il-76에 공중에서 투사되었다. 소속과 계층을 숨긴 채 러시아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한 지난 3월 1일부터 서서히 정체를 드러냈다. 군사점령이 어느 정도 이뤄진 지난 3월 2일부터는 사회기반시설을 점거하고 지역 차원의 행정·군사 지원체계까지 장악했다. 그는 크림 주민을 상대로 선전 활동을 펼쳤고, 현지 상황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유력 인사, 언론인들을 상대로 언론 활동도 펼쳤다. 크림 반도의 우크라이나군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나씩 항복했다. 지난 3월 20일에는 크림반도의 정예부대인 우크라이나 제2독립해병대가 영내에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는 상징적인 행사가 열렸다. 러시아군은 크림에서 복무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뒤를 이을 것을 약속했고 러시아 군과 같은 급역을 제공했다. 주요 지휘관을 포함한 군인의 약 3분의 2가 러시아 군 복무 계약서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2014년에도 탱크와 포병을 기반으로 한 전통군대로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했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작전이 수평적이라면 2014년 동시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러시아군의 동시 및 입체 작전 수행 능력은 우크라이나 동부 침공 당시 두드러졌다. 러시아와 인접한 돈바스 지역은 친러 강국으로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와의 분리를 요구해 왔다. 친러시아 세력은 반(反)우크라이나 무장세력을 규합해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2014년 갈등이 무장투쟁으로

10) 온대원. 2015,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신안보질서,” 『EU연구』, 40호: 35-66.

확대돼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했다.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무장세력이 도심을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교전이 격렬해졌다. 체첸에서 온 자원 민병대와 병사들의 합류는 친러시아 무장세력의 군사적 우위를 강화했다¹¹⁾. 이것은 2008년의 조지아 침공과 비슷했다.

이때 러시아는 '돈바스 내 러시아계 보호'를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워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군사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몇몇 특수 작전 부대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비밀리에 침투했다. 이날 훈련에는 9만4000여 명의 병력과 8개 독립여단(스나이퍼 3개 여단, 공중 4개 여단, 포병 1개 여단), 전차 3개 연대, 27개 대대(14개 12중대, 독립 포병 13개 대대), 해병대 10명이 참가했다. 모두 명령이 떨어지면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었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고 필요하다면 국경을 넘어 직접 진격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은 현대화된 전력을 가진 러시아 특수작전군과 대형 재래식 육군 전투부대가 외부로부터 동시 교전을 강요하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반면 나토의 군사개입을 차단했다. 지난 5월 말 도네츠크 공항에서 친러시아 무장세력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하고 강제 진입하면서 전쟁은 완전히 한쪽으로 돌아섰다¹²⁾.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약 4만 명의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주변에 집결하였다. 러시아군의 강력한 군대는 소련이 해체된 직후 추진한 군사 개혁의 결과였다. 유형별로는 대규모 보병 위주의 병력을 유지하는 재래식 군대에서 전차와 특수부대 중심의 정예 군대로 탈바꿈했다. 무형의 정신력 수준도 두 배로 높아졌다. 고질병이었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보급·병역 부문을 민간에 위탁하고 장병들의 식·의류·쉼터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대표적이다¹³⁾.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였다. 2014년 9월 민스크에서 제1차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은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개입 때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동부 우크라이나를 지배했고 분쟁은 계속되었다. 2015년 돈바스 분쟁이 다시 격화되자 독일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그 결과, 2015년 2월 12일 제2차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분쟁 종식을 위한

11) 김성진. 201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중소연구』, 39권 4호: 245-285.

12) MccGwire, Michael. 2008, "NATO Expansion: 'A Policy Error of Historic Importance'," *International Affairs*, Vol. 84, No. 6: 1281-1301.

13) Morrow, James D. 1991,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904-933.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 친러 무장세력(도네츠크-루간스크 분리주의 반군)이 각각 대표적이다. 2014년 크림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침공은 러시아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강력한 군대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러시아가 직접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내 친러 세력을 지원·조작해 크림반도를 병합했고,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밖에서 대규모 군집회가 정치·전략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사용하는 전반적인 전략과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3.2 나토의 대응전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데는 시기적 요인도 있다. 2012년 시카고 정상회의에서 "NATO의 정치적 자치를 일부 허용하고 NATO 대응군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대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어느새 전쟁이 터졌다. 나토와 그 군대는 필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자연스럽게 나토와 나토군의 사용이 증가했다. 이 상황의 흐름은 러시아가 바라던 바였다. 러시아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기본 전략은 유럽을 분열시키고 미국이나 나토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렬해지고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됐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는 민스크 협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치안은 더욱 악화되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적개심, 극단적 민족주의, 지도력 붕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동부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이른바 발트 3국의 공포는 극대화됐다¹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무정부 상태에서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한다. 물론, 약한 나라가 모든 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에는 많은 힘이 작용한다. 역사적, 문화적 힘도 그 중 하나다. 어떤 나라도 역사적, 문화적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약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침략할 군대의 힘, 그들을 지원할 공군의 힘,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 해군의 힘이다.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강대국이 큰 바다를 건너면 약소국의 두려움이 거의 없다. 강대국도 공격 의도를 재고해야 할 정도로 큰 바다는 넘어

14) -조영원, 2022, 매일경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원하는가

야 할 매우 어려운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한 나라들은 항상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걱정하며 자세히 살펴본다. 그중에서도 영지를 침략하고 점령한 목표물에 지속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인 군대가 가장 두렵다.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대국이다¹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렬해지고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됐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는 민스크 협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치안은 더욱 악화되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적대감, 극단적 민족주의, 지도력 붕괴, 경제난이 가중됐다. 반면 우크라이나 동부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이른바 발트 3국의 공포는 극대화됐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무정부 상태에서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한다. 물론, 약한 나라가 모든 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에는 많은 힘이 작용한다. 역사적, 문화적 힘도 그 중 하나다. 어떤 나라도 역사적, 문화적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약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침략할 군대의 힘, 그들을 지원할 공군의 힘,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 해군의 힘이다.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강대국이 큰 바다를 건너면 약소국의 두려움이 거의 없다. 강대국도 공격 의도를 재고해야 할 정도로 큰 바다는 넘어야 할 매우 어려운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한 나라들은 항상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걱정하며 자세히 살펴본다. 그중에서도 영지를 침략하고 점령한 목표물에 지속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인 군대가 가장 두렵다.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대국이다.

발트 3국과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차이점은 그들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것이다. 발트 3국이 안보 위협으로 나토를 탈퇴하거나 친러파가 집권할 경우 유럽의 세력 균형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기울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에스토니아를 직접 방문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버락 오바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세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북대서양 조약 5조의 핵심을 재확인했다. 나토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2014년 웨일스 정상회의에서 NATO 회원국 대표들이 만나 향후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방위비 증액, 무기·장비 현대화, 대응 가능한 수준의 계획

15) -고형규, 2015,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사태가 냉전 후 최대 위기인 6가지 이유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공약이나 나토의 대안은 발트 3국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완전히 완화시키지는 못했다. 유사시 미군이 출동하거나 나토 대응군이 출동해도 러시아 막강한 군대가 국경을 넘어 수도를 장악하고 도착한다. 현재의 준비태세, 전투태세는 러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능력에 대응할 수 없었다.

3.3 미국의 대응전략

나토는 발트 3국이 주도하는 유럽의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군의 빠른 기동력과 효과적인 화력'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지연구원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랜드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을 분석해 "러시아 기갑부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군이 도달하기 전에 동유럽의 수도를 점령하거나 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확인된 러시아 육군 22개 대대는 전차와 장갑차로 증원돼 포병과 항공부대의 지원으로 자체 보급과 수송이 가능한 새로운 부대인 '대전전투단'이었다. 기존 연합전투단을 혁신해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적 목표를 충족시킨 결과였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역은 물론 동유럽 전역에서 언제나 신속하고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대대 전투단의 임무이자 역할이다. 능력 면에서 러시아 대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응대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국토연구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러시아 대대 전투단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나토군이나 나토 대응군의 주요 임무에서 초기 조치와 위기 대응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외부 침략에 대한 적극적인 무력 사용을 강조한다. 그러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작전 범위가 수정돼야 한다. 둘째, 발트 3국을 포함한 러시아군의 직접적인 침공 위협 아래 군대가 미리 배치될 것이다. 이것은 향상된 순방향 존재(EFP)의 개념과 단위에 의해 가능하다. 셋째, NATO 또는 NATO 회원국은 연합 훈련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파견된다. 연합훈련과 훈련은 외국군을 자국 영토에 계속 주둔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NATO 대응군은 이미 호주, 핀란드, 조지아, 요르단, 스웨덴 등 파트너국 영토에서 연합훈련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NATO, 2020년)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방안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전진배치 강화'다. 나토는 앞서 "러시아군이 동유럽 국경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배치해 거부반응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상된 전진배치'는 우선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들의 주최국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나토군이 각국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이러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2017년 6월 이후 NATO는 발트해에 NATO의 해군 순환과 함께 4개 대대의 다국적군을 주둔시켰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냉전 나토군의 러시아 국경 전진배치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토의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작전의 윤곽은 나토군의 준비 행동 계획(RAP)에서 찾을 수 있다. '준비행동계획'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지상을 통해 침입하면 나토군이 이를 저지해 EFP 부대로 지연시킨 뒤 결정적 군사력을 투입해 격퇴·파괴한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 개념과 계획과는 반대로, 나토는 러시아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파괴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었다. 냉전 종식 이후 나토는 유럽 방위에 있어 미군이 맡아온 역할을 대체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는 NATO 창설의 목적이었던 선별적 안보와 집단적 방어의 본질에 부합했다. 그러나 NATO군이 그에 따라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군사 표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배치 전에 러시아의 침략을 먼저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제1차 러시아 침공을 막는 역할은 유럽군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불충분했다. 연구와 전투 실험에서, 어떤 유럽 군대가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든 간에, 러시아 군대는 먼저 이웃한 수도에 도달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된 대안은 VJTF (Very High Readiness Joint Task Force)이다. VJTF는 기존 NATO 대응군보다 더 준비되고, 빠르고, 규모가 큰 약 2만 명 규모의 부대이며, 핵심 임무는 "NATO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시도에도 군사적 교전으로 즉각 보복"하는 것이다(NATO, 2020). NATO는 현재 EFP와 VJTF를 "향상된 NATO 대응군"(eNRF)이라고 부른다. '강화된 나토 대응군'의 작전개념과 보조역량은 미국 중심의 진보진영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경지대에 전방으로 병력을 배치한 뒤 강력한 예비군을 보유하던 냉전 전략과 전술을 연상시킨다.

미국은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정책과 전략을 극적으로 바

꾸었다. 탈냉전 이후 지속된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기조를 바꿔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늘려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2017년 유럽 국방 예산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애쉬 카터 국방장관은 예산이 주로 유럽 기지에 미군을 배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2월 26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크림은 우크라이나 영토이며, 합병은 받아들일 수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4월, 그는 유럽으로 군대를 돌려보내고 독일과 다른 지역, 특히 발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2018년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미국 국방정책의 기조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가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별도로 러시아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냉전 복귀'로 보이는 미국의 조치는 유럽의 안보 환경이 '불균형 다극체제'에 놓였을 때부터 일찌감치 예견됐다. 두 강대국뿐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군비를 강화하고 고밀도 안보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됐다. 미국은 위의 조치를 '냉전기에 버금가는 전진배치'라고 명확히 표현했다. 현재 미국은 유엔이나 나토에 대한 집단안보와 집단방어와는 별개로 유럽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합훈련을 통해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병력 배치를 '냉전 복귀'로 점치는 근거다.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태와 이에 대한 NATO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폭넓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부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시기 동안,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과 서방의 대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Mearsheimer(2014)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분석하며, 이는 NATO의 동진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서방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McFaul(2014)은 러시아의 행동을 침략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푸틴 정권의 정치적 동기와 국내 정치

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014년 이후, NATO와 미국은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군사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Smith(2016)는 NATO가 동유럽과 발트해 지역에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고, 집단 방위를 위한 군사훈련을 증가시킨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하며, NATO 회원국들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한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Davis(2022)는 이 전쟁이 NATO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서방의 무기 지원과 군사 훈련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쟁의 장기화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또한, NATO와 미국의 대응은 단순한 군사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병행하는 형태로 나타났다(Johnson, 2022). 이는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초래하여 군사적 행동을 제한하려는 전략이었다.

러시아의 영토확장과 이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대응에 관한 추가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Gehring et al.(2017)은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국제법과 규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크림반도 합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또한, NATO의 군사적 대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NATO의 내부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Sloan(2018)은 NATO의 집단 방위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하며,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반영한 군사적 배치와 훈련이 증가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NATO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강조하였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Pifer(2019)는 미국의 무기 지원과 군사 훈련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군사적 행동을 제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하였다.

러시아와 서방 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주제이다. Blank(2020)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이 유럽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는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NATO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증가

함에 따라, 군비 경쟁과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Götz(2021)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에 주목하였다. 그는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 정보전, 경제적 압박 등을 포함한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서방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은 전통적인 군사적 대응을 넘어서는 복잡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추가적으로, Allison(2014)은 러시아의 외교 정책 변화를 고찰하며, 러시아의 영토 확장이 자국의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러시아가 과거 소련의 권역에 대한 통제력을 재확립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단순한 국경 확장이 아닌, 보다 넓은 지리정치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주변국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Orenstein and Kelemen(2017)은 러시아의 행동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켰으며, 이들 국가들이 NATO 및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또한, Tsygankov(2015)은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요인들이 군사적 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푸틴 정권이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협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적 단결을 도모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단지 외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ATO의 대응에 대한 추가 연구로는, Rynning(2015)이 NATO의 전략적 재조정을 분석하였다. 그는 2014년 이후 NATO가 동유럽에서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재조정은 NATO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회원국들 간의 상호 방위 협력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태와 서방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Arbatov(2016)은 러시아의 군사 전략 변화를 분석하며, 러시아가 전통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정보전 등을 포함한 비대칭적 전술을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전략이 서방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Legvold(2014)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단기적 군사 충돌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그는 이 갈등이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에너지 안보와 경제 제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군사적 대응 외에도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NATO와 미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협력과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Ringsmose and Rynning(2017)은 NATO 회원국들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분석하며, 공동 방위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NATO의 동부 전선에서의 군사 배치와 신속 대응 부대의 창설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대응에 있어서는, Stent(2019)이 미국의 외교적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접근이 국제 사회에서의 러시아 고립을 초래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Keohane and Nye(2018)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국제 체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이 갈등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다자간 협력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제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V.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1. 전쟁의 배경

러시아 영토에 대한 야망은 끝이 없다. 러시아는 수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힘을 잃었지만 유가·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러시아에 복속시키겠다는 야심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철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땅을 조금이라도 빼앗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있는 나라이다.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프 해,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벨라루스,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남서쪽으로는 몰도바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키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이다. 동유럽 평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다. 공용어는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이며, 인구의 절반이 러시아어이다. 우크라이나의 통화 단위는 흐리브냐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어떻게 결정하든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추세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언한 뒤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감행한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돈바스 전쟁으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국지적 충돌에서 비롯됐으며,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의 전력이 이들을 상대하기에 미흡해 8년간 교착상태에 빠졌다¹⁶⁾.

여기에 러시아가 친러 반군을 비밀리에 지원했지만 당시엔 표면적으로 지원을 거부해 제3자 지원 규모가 작았다. 이후 러시아는 돈바스 장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16) Ringsmose, Jens and Sten Rynning. 2016, "Can NATO's new Very High Readiness Joint Task force deter?" 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Research Report, January 1, <http://www.jstor.org/stable/resrep07991> (2021/03/16).

개입을 계획하며 위기를 고조시켰고, 2021년 초부터 곳곳에서 러시아 침공 징후가 포착됐다.

2022년 1~2월경 벨라루스와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동북부 국경을 넘어 대규모 병력이 집결해 본격적으로 벨라루스를 침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러시아가 전면전을 노리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중앙 담론은 전면 침공을 예상하지 못했다. 냉전 이후 기존의 평화유지 국제질서를 깨뜨리고 서방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동시에 명분 부족으로 잃을 게 많은 도박이었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 가용 전력의 95%를 배치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며칠 뒤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나 붕괴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한 각오로 선전을 이어갔고, 러시아군은 무기와 장비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¹⁷⁾.

서방과 자유민주국가들은 러시아의 투쟁을 보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자원을 보내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국제결제망을 철수하고, 가스관을 취소하고, 러시아 은행의 외환과 푸틴의 외국 자산을 동결하고, 선진 물자를 차단하고, 러시아 항공기와 선박을 금지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소련에 이어 다시 한번 국제적 고립에 빠졌고, 동시에 소련 해체 시기에 버금가는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이 전쟁은 브렉시트의 끊임없는 반목과 국방비 감축 정책으로 약화돼 있던 유럽 연합(EU)과 나토의 결속을 강화했고, 독일의 1000억유로(약 134조원) 재무장 패키지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경제력이 유럽에 대규모 확장을 촉발했다. 여기에 전 세계의 반러 감정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국가 위상과 지역 패권을 한꺼번에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의 정치, 국방, 경제, 외교, 문화는 한 국가의 힘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분야에서 최소한 보리스 옐친의 시대로 러시아를 밀어넣는 최악의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 길어지자 궁지에 몰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대응해 PMC와 체첸군, 시리아 민병대를 동원하고 중국에 군사원조를 요청했다. 실제 제1세계와 제2세계 간 비공식 대리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핵 공격 가능성, 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비우호국(사실상의 적국) 명단을 발표하며 맞대응 제재를 예고했다.

17) Russia Today. 2008, "Death toll in South Ossetia reaches 2,000," August 10, <https://www.rt.com/news/death-toll-in-south-ossetia-reaches-2000/> (2020/12/03).

이 전쟁과 함께, 신냉전이라는 단어가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0여 년 전으로, 10년대 후반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탈냉전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했다. 여기에 중국에 점차 주도권을 빼앗기던 러시아가 다시 전면에 나섰다.

4.2 나토의 대응전략

서방의 강력한 압박에도 러시아 측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러시아 관리들은 동부에서의 교전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 국가들에게 돌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친이 러시아 내 외국 자산을 동결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1989년 서독 합병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유럽 국가에 천연가스를 선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방의 경제 제재와 강력한 고립주의 정책으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러시아 사회 내에서는 애국심과 민족주의 열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러시아가 지배하는 엘리트 집단은 서방을 외부의 적으로 규정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러시아와 서방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지난 몇 주 동안 반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수세에 몰렸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강력한 군사 지원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이 입장을 지지해왔다¹⁸⁾.

18) Deni, John R. 2021, "U.S. Force Structure Changes in Europe: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pril 19, [https://www.fpri.org/article/2021/04/u-s-force-structure-changes-in-europe-necessary-but-notsufficient/\(2021/05/04\)](https://www.fpri.org/article/2021/04/u-s-force-structure-changes-in-europe-necessary-but-notsufficient/(2021/05/04)).

3.3 미국의 대응전략

그러나 군사 무기 지원을 통한 강경 대응이라는 미국의 논리는 유럽에서 심각한 정치적 우려를 낳고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미국산 살상무기의 등장은 전혀 다른 군사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대응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동부지역 내전에 직접 개입할 경우 우크라이나 문제는 더욱 복잡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핵 강국 간 군사적 대치가 조성되면 유럽 안보질서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유럽인들의 전쟁 공포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유럽의 동부 중심인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의 운명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부를 수립하면서 돈바스 지역을 사실상 통제하게 된다. 이제 고통의 시간만이 우크라이나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국가의 우선순위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권력이 우선이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우리는 순진하게 핵무기를 포기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1,8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면, 러시아는 그것을 무모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 정당방위 목소리는 말한다.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우리에게도 언젠가 닥칠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서구 정책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러피언 패스 전략 계획은 우크라이나에게 국익 확보를 위한 경제적 이익을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 계획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유럽 단일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첨단 기술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개혁 정책의 시행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럽 통합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고, 우크라이나의 미래 국가 발전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선택들은 본질적으로 동양의 정책 결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도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유럽 단일 시장에서의 접근과 유럽 통합 과정은 많은 정책 과제들을 요구하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도전 과제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내부적으로 개혁을 진행하

고,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우크라이나의 국가 발전과 국제적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방의 옵션이 EU 기준에 맞는 다양한 정책 노력을 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약속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선별적 사법 적용을 중단하고 인권 탄압을 종료하고 야당 인사 석방, 사법제도 개혁, 선거법 개정, 민주화 조치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아울러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다양한 개혁정책과 개선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모든 요건이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와 지배 엘리트 집단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둘째, 서구 지향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장기적인 준비 기간과 사회 개혁을 견뎌내는 방법이다.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연합 협정과 자유 무역 협정은 EU 가입이라는 그것의 주요 국가 목표의 서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AA와 EU와 FTA를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⁹⁾.

특히 EU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 홍완석. 2014, “2014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반도,” 『슬라브研究』, 30권 2호: 89-118.

V. 결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숨가쁘게 전개되면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아시아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밀집형'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푸틴의 '과거'다. 2008년 조지아에서처럼, 그는 군사 공격을 선택했다. 당시 러시아는 옛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그루지야 내 친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지역을 장악하면서 그루지야 정부가 무력 진압을 한 뒤 자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푸틴의 무자비한 투지 또한 고려할 가치가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KGB) 위원 출신인 푸틴 대통령은 체첸과 이슬람 반군이 러시아 연방과의 분리독립을 위해 싸우는 연합체다.

푸틴에 대한 바이든 부통령의 선택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이란 핵 폐기, 시리아 사태 등 잇따른 협력 이슈로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공격할 수 있고, 러시아가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꿔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강경해진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천연가스 수출은 주로 우크라이나를 통해 이뤄진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 등 주요 국제 현안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에 강경 대응을 표명했지만 러시아의 실제 군사행동을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 개입하면 '제2의 시리아 위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엔을 통해 외교적 압박과 중재 방안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요약했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서방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며, 전쟁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미군은 NATO의 틀 안에서 NATO의 대응부대의 일부로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확장 목표는 분명히 러시아의 영토 확장 활동을 억제하고 저지하는 것이다. 에스토

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미군이 주둔한 것이 그 증거이다. 미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이러기보다는 다국적군에 가깝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이름을 빌렸지만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을 위해 파견됐다. 동유럽 약소국들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다. 동유럽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위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 역사적으로, 약한 나라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발트 3국의 안보를 다짐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에스토니아를 방문했고 러시아의 패권 추구를 막기 위해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군대를 파견했다. 이것은 일시적인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다. 미국은 2018년 국방전략 초판부터 러시아가 주변국의 경제·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주변국의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무부도 공식 문서에서 러시아를 안보 도전국으로 지목했다. 그는 러시아의 행동을 방지할 경우 결국 그루지야, 크림, 우크라이나 동부를 전복시켜 유럽 민주질서와 내부로부터 쌓은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그는 만약 미국이 개입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는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앞으로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이를 억제하고 저지하기 위해 파견되는 미군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또한 강력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평화 집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냉전 이후 유럽 질서를 지배했던 '불균형 다극체제'가 '불균형 양극체제'로 탈바꿈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1. 러시아의 지속적인 영토 확장 전략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두 러시아의 영토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러시아는 군사 개입을 통해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했다. 이러한 행동은 러시아가 지리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다시 감행하여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군사력으로 직접 통제하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이익 보호를 넘어 더 넓은 지리정치적 범위에서 주도권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나토와 미국의 일관된 대응 전략

두 차례의 전쟁에서 나토와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대해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 전략을 취했다. 2014년, 나토와 미국은 주로 경제 제재와 정치적 압박을 통해 러시아의 행동을 억제하려 했다. 이러한 제재 조치에는 러시아 고위 관료의 자산 동결, 러시아 은행의 국제 금융 시장 접근 제한, 러시아 주요 경제 부문에 대한 무역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지만 러시아의 추가 행동을 막지는 못했다. 2022년, 서방 국가들은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이러한 조치에는 러시아를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와 군사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대응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확장주의에 대해 얼마나 경계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 국제 사회의 역할과 중요성

두 전쟁 모두 국제 사회가 갈등 해결과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4년 전쟁 당시, 유엔과 유럽연합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려 했으나 이러한 노력은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는 못했다. 2022년, 국제 사회의 반응은 더욱 신속하고 조율되었으며, 유엔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일련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 사회가 침략에 대응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4. 군사적 긴장과 지역 안보의 중요성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과 이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대응은 동유럽과 한반도 등 다른 지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러시아의 동유럽에서의 군사 행동은 해당 지역의 안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 상황은 한반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자체적으로도 매우 복잡하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은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미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군사 위협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며, 다자 외교 노력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신냉전의 가능성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냉전 시기의 긴장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 및 그 동맹국들 간의 군사적,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양측 간의 전략적 경쟁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추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확장주의 전략과 그로 인한 국제 정치와 안보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한국과 같은 국가가 유사한 국제 정세에서 직면할 수 있는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여 국제 관계와 안보 전략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은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주로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국제 관계와 군사 전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구 시점 이후의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장기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다른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다른 지역의 국제 관계 동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 결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특정 상황과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언이 실제로 적용될 때는 다양한 제약 조건과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미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 관계와 안보 전략에 대한 이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대국들의 또 다른 완충지대인 한반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세력(사회주의)과 해양세력(자본주의)의 투쟁이 빚어낸 한국전쟁의 발전·발전 과정에서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권력 경쟁이 진행되는 동안 취할 수 있는 입장과 전략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조선 말기 근대 이후 한반도는 세 가지 큰 역사적 격변을 겪었다. 한반도의 큰 변화는 우리 민족 자체의 사회적 요구와 역사적 발전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그것은 기보다는 지정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외적 요인에 의해 발전되었다.

1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로 해양과 대륙세력 간의 새로운 갈등과 갈등 국면이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상 한반도를 놓고 끊임없이 싸워온 중국과 일본 외에도 동북아시아로 세력 확장을 꾀하던 신강대국 러시아와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고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 전후로 밀월동반자 관계에 있던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권력 갈등을 겪었고, 결국 서로 금이 가고 싸웠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 민족도 민족 독립에 직면했지만 연합군의 공동 회원국인 소련과 해양 강국인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공유하면서 분단, 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 이 시기는 미국의 압도적 지배력과 해양대국, 일본의 연합군 부상, 중국의 강력한 부상,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자신감, 동북아 진출 등이 쇠퇴한 것이 특징이다. 동북아 신권력 재편 과정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득 관계에 따라 각국이 요동치며 합종연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생과 발전은 제2기와 한반도 격변의 성격 면에서 겹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 파시즘에 맞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뒤 연합국의 중심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전후 세계무대에서 리더십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동시에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피하면서도 한반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전쟁을 벌여 서로의 의지와 역량을 시험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국제적 힘의 균형을 이뤘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피하고, 상대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며, 어둠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

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²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 보호를 개입 이유로 들었다. 중국이 유사시 북한 지도부의 요청을 빌미로 직접 북한을 점령하거나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을 점령하려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이미 동유럽이 서방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서방세력의 진입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동북아에서 미·일 해양세력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는 큰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크림 반도를 편입하는 것은 북한에서 유사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이상적인 통일 형태 중 하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최대한의 합의와 협력을 통해 예상되는 중국의 간섭을 막을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동북아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주변국에 경제와 공포를 안겨주는 중국의 급부상은 강대국 러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1853년부터 1856년까지의 크림 전쟁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전쟁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틈타 다시 크림반도로 군대를 이동시키며 영토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침략과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²¹⁾.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자치공화국에 병력 2000명을 추가 파견했고, 아조프해 인근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비행하는 러시아 헬기 10대도 투입했다. 여기에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해안 초소를 봉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흑해함대에서의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와의 상호 합의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을 부인했지만, 이를 믿을 나라가 세상에 있겠는가. 아

20) Lieberthal, Kenneth G. 2011, "The American Pivot to Asia," Brookings, December 21,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american-pivot-to-asia/> (2020/12/03).

21) Liberman, Peter. 1993, "The Spoils of Conques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2: 125-153.

마코프 우크라이나 내무장관도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해군력에 의해 봉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AP통신은 이들이 인근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이라고 보도했다²²⁾.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군대를 밀어넣고 사실상 점령되자 나토는 물론 미국도 발끈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의 60%가 러시아인임을 감안하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푸틴은 절대 크림반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 러시아 흑해 함대가 있고 지리적 위치가 매우 좋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반으로 쪼개져도 끝까지 버틸 것이다.

다만 미국이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이미 점령해 양국 간 신경전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의 구실이 될 수 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유엔은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러시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쥐면 자존심이 강한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분위기로 이어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만약 러시아와 미국이 여기서 충돌한다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결국 고래 싸움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러시아와 한국이 인접해 있고 중국과 북한이 위치한 상황에서 결코 이런 민족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모든 국제사회와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상황이 악화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연방이 취한 군사행동에 대한 보고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위반은 심각한 불안을 야기한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이 가격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미국이 유럽 문제를 그냥 두고 보는 게 맞다고 본다.

사실, 강대국의 침략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정당화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침략당하거나 점령당해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한국은 국력을 쌓고 자국을 배신한 일본보다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 NATO. 2009, "Strasbourg / Kehl Summit Declaration," NATO News, April 4, https://www.nato.int/cps/en/natolive/news_52837.htm (2020/11/11).

참고문헌

- 강정일. 2019,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5권 2호: 147-171.
- 고상두. 2008,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독미군의 철수,” 『국가전략』, 14권 3호.
- 그레고리 프리몬 반즈(Gregory Fremont-Barnes)·토드 피셔(Todd Fisher) 저, 박근형 역. 2009, 『나폴레옹 전쟁: 근대 유럽의 탄생』 (서울: 플래닛미디어).
- 김정기. 2011, “러시아의 전면적 군개혁: 현황과 전망,” 『전략연구』, 53호: 113-151.
- 박상섭. 1996, 『근대국가와 전쟁: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서울: 나남출판).
- 온대원. 2015,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신안보질서,” 『EU연구』, 40호: 35-66.
- 존 J.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 저, 이춘근 역. 2004, 『강대국 국제정치 의비극』 (서울: 나남).
- Allison, Roy. 2015, “Russian ‘Deniable’ Intervention in Ukraine: How and Why Russia Broke the Rules,” *International Affairs*, Vol. 90, No. 6: 1255-1297.
- Bugajski, Janusz. 2010, *Georgian Lessons: Conflicting Russian and Western Interests in the Wider Europ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Coffey, Luke. 2019, “Creativity and Bold Leadership Needed for Georgia’s NATO Membership,” *The Heritage Foundation Issue Brief*, No. 4969, <https://www.heritage.org/defense/report/creativity-and-bold-leadership-needed-georgias-nato-membership> (2021/02/12).
- Gould, Joe and Tara Copp. 2018, “Pentagon unveils \$686 billion military budget for FY19,” *Defence News*, February 13, <https://www.defensenews.com/breaking-news/2018/02/12/pentagon-unveils-686-billion-military-budget-for-2019/> (2020/12/03).
- Kugler, Richard L. 2006, “The NATO Response Force 2002-2006: Innovation by

theAtlantic Alliance,” National Security Transformation, No. 1
(WashingtonD.C.: Center for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National DefenseUniversity).

Mandelbaum, Michael. 1995, “Preserving the New Peace: The Case against
NATOExpansion,” Foreign Affairs, Vol. 74, No. 3: 9.

MccGwire, Michael. 2008, “NATO Expansion: ‘A Policy Error of Historic
Importance’ ,” International Affairs, Vol. 84, No. 6: 1281-1301.

Morrow, James D. 1991,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Vol. 35, No. 4: 904-933.

Abstract

NATO and U.S. Military Response to Russia's Territorial Expansion
- Focusing on the 2014 and 2022 Russia-Ukraine Wars -

곽한박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University of Ulsan On February 24, 2022, Russia's invasion of Ukraine can be interpreted as a proxy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declared a military operation citing threats from Ukraine and justified it with Ukraine's push to join NATO and reconsideration of its nuclear disarmament policy. Russia prepared for both military responses and Western economic sanctions, while NATO and the U.S. strengthened their military responses to this aggression. The annexation of Crimea and the conflict in Eastern Ukraine in 2014 demonstrated Russia's intent for territorial expansion, prompting NATO and the U.S. to develop corresponding strategies. This study analyzes NATO and U.S. military responses to Russia's territorial expansion, focusing on the Russia-Ukraine wars,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this conflict for the Korean Peninsula. It discusses how NATO's response strategies and U.S. policy shifts address Russia's military threats, and examines the geopolitical similarities between Eastern Europe a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ssesses the impact of Russian expansionism and international responses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Russia-Ukraine War, Vladimir Putin, NATO response strategy, U.S. militar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